

자신감 드높은 근대5종...단일 올림픽 '멀티 메달' 도전



승마



수영



펜싱

2024 파리 올림픽 주목 이 종목 근대5종

한 명의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을 모두 소화해야 해 '진정한 올림픽 스포츠'로 불리는 근대5종은 3년 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메달 중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 경기에서 전용태(광주시청)가 동메달을 목에 걸어 1964년 도쿄 대회부터 올림픽 근대5종에 출전한 한국에 사상 첫 메달을 선사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19세기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를 모델로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근대5종은 유래에 걸맞게 유럽이 강세를 보여왔다.

역대 올림픽에서는 헝가리(금9·은8·동6)와 스웨

덴(금9·은7·동5) 등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2020 도쿄 올림픽 때는 영국이 남녀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아시아에선 2012년 런던 대회 때 차오중룡(중국)의 남자부 은메달에 이어 전용태가 역대 두 번째로 올림픽 근대5종 메달리스트가 된 바 있다.

이후에도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전용태가 2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 근대5종은 국제 무대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뒀다.

'메달 색깔'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최초의 단일

올림픽 '멀티 메달' 획득이다.

도쿄에서 첫 동메달이 나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상 첫 금메달에 여러 개의 메달 획득까지 내심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에서 고르게 입상자를 내 온 대표팀이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한층 키웠다.

2003년생 신에 성승민(한국체대)이 한국 근대5종의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전 사상 첫 입상을 금메달로 장식했고, 전용태가 5년 만에 개인전 동메달을 수확해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다.

남자 계주에서 전용태-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여자 계주에서 성승민-김선우(경기도청)가 각각 금메달을 합작해 사상 첫 남녀 계주 동반 우승도 나왔다.

김선우와 서창완은 혼성 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단체전에서 남녀부 모두 은메달을 수확해 사

상 첫 '전 종목 입상'을 달성했다.

올림픽 근대5종엔 한 국가에서 남녀 선수 2명씩 출전할 수 있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맹활약한 전용태, 서창완, 성승민, 김선우가 나란히 파리로 향한다.

전용태와 김선우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입상으로, 성승민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서창완은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집계된 세계랭킹을 통해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올림픽 근대5종에선 단체전이나 계주는 없이 남녀 개인전만 열려 전용태와 서창완, 성승민과 김선우는 각자 경기에 들어가면 '선외의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지만, 모두가 '동반 입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헝가리, 이집트, 영국 등이 주요 경쟁국으로 꼽히는 가운데 남녀부 각 36명이 모두 돌아가며 한 번씩 예제로 겨루는 펜싱 랭킹 라운드 대회의 시작이자 성패를 좌우할 열쇠로 꼽힌다.

수영은 200m 레이스를 펼치며, 승마는 장애물

경기로 진행된다. 육상과 사격이 결합한 마지막 레이저 런에선 앞선 종목들의 성적순으로 선수마다 출발 시간이 차이를 뒀 3,200m를 달린다.

중목을 만든 쿠베르탱 남작이 프랑스인이자 프랑스는 근대5종의 '중주국'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보니 이번 파리 올림픽은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의미가 클 대목이다.

특히 일정 첫날인 8월 8일(현지시간) 아래나 파리 노르에서 예정된 펜싱 랭킹 라운드를 제외한 경기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돼 '보는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 올림픽 때 공정성, 동물 학대 등 논란이 일었던 승마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사라지고 다양한 장애물을 빠르게 통과하는 장애물 경기로 대체되기 하면서 승마가 포함된 마지막 올림픽 경기라는 점도 남다른 부분이다.

펜싱 랭킹 라운드 이후 8월 9일엔 남자 준결승, 10일엔 남자 결승과 여자 준결승, 11일엔 여자 결승 경기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함께 시상대 오르겠다”

광주시청 전용태·영암 출신 서창완 '마지막 스포츠'

근대5종 전용태(29·광주시청)와 영암 출신의 서창완(27·국군체육부대)이 파리올림픽에서 동반 입상에 도전한다.

현재 경북 문경시 국군체육부대에서 연맹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마지막 스포츠'를 내고 있다.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용태는 앞선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근대5종에서 입상한 한국 최초의 선수가 됐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른 그는 지난해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5년 만에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며 파리 올림픽을 향

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전용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국 근대5종 선수들 모두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느껴서 더 기대가 된다"며 "파리에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또 "(서)창완이랑은 꾸준히 경기를 같이 뛰어 왔고, 서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며 "가끔은 저보다 더 형 같은 면이 있어서 창완이한테 많이 의지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동생들이랑 올림픽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서창완은 지난해까지 전남도청 근대5종팀에서

활약했으며 최근 국제대회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창완은 지난달 '2024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전용태와 금메달을 합작했고, 김선우(경기도청)와 함께 나선 혼성 계주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서창완은 "첫 번째 올림픽이고 꿈에 그리던 올림픽이어서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 올해 몸 상태도 괜찮고 경기 감각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꼭 시상대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를 지도해 온 전남근대5종연맹 강동운 전무이사는 "(서)창완이가 국가대표가 된 지 2년 차다. 워낙 차분한 성격인데 최근 성적으로 자신감이 더 붙은 것 같다. 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 성적이 연연하지 말고 경기 자체를 즐기며 재밌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태



서창완

서창완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마지막 순위 싸움이 걸려있는 레이저런이다.

서창완은 "최근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격이나 펜싱 승마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 있는 종목인 레이저런에서 강점을 더 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해 계속 많은 시합을 뛰면서 체력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잘 챙겨 먹고 또 체력 관리에 집중하면서 훈련에 임하면서 컨디션을 많이 끌어 올리는 중이다. 근대5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KIA 타선 '신·구 조화' 팬도 신났다

'최고령 만루포' 최형우·20세 김도영 등...타율·홈런·타점·장타율 등 1위 견인



'신구 조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KIA 타이거즈가 성적과 미래를 동시에 잡으면서 팬들을 웃게 하고 있다.

전반기를 스윙승으로 마무리했던 KIA는 2위 LG 트윈스와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기본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1위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강점은 역시 타선이다. KIA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을 앞세워 타율, 홈런, 타점, 득점권 타율, 출루율, 장타율 1위를 장식하고 있다.

'기록의 사나이' 최형우가 여전히 실력으로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 시즌 경기 도중 쇄골 분쇄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우려를 샀지만 올 시즌 가장 꾸준하면서 도 강렬한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올 시즌 KBO리그의 타점, 타율, 기록 등을 새로 써가고 있는 그는 지난 6일에는 올스타전에서 홈런 포를 날리면서 40세 6개월 20일이라는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가 됐다.

최형우는 LG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또 다른

최고령 기록을 만들었다.

5-2로 앞선 6회 초 1사 만루에서 타석에 선 최형우는 이상영의 5구째 슬라이더를 우측 담장 밖으로 넘기며 만루포를 장식했다.

이와 함께 최형우는 시즌 17번째 홈런이자 개인 9번째 그랜드슬램 그리고 40세 6개월 23일이라는 KBO리그 국내 선수 최고령 만루홈런 기록도 만들었다. 앞선 기록은 2022년 9월 20일 롯데 이대호가 기록한 40세 2개월 30일이다.

팀의 최고참이 버티고 있는 타석에 새로운 해결사도 등장했다.

입단부터 '특급 뎡이'로 눈길을 끌었던 김도영이 앞선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기 시작했다.

4월 한 달 10개의 홈런과 10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KBO리그 역사상 첫 '월간 10-10' 주인공이 됐던 김도영은 6월에는 '20-20'까지 달성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가 됐다.

앞선 3·4월 월간 MVP에 선정됐던 김도영은 6월 MVP트로피까지 차지하면서 기대주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해결사가 됐다.

리그 최고의 빠른 발은 물론 폭발력까지 겸비하면서 머리 아픈 상대가 된 김도영, 눈길 끄는 '고의

사구' 장면의 주인공도 되고 있다.

6월 11일 SSG와의 경기에서 상대가 김도영을 고의 사구로 내보냈다. 김도영 뒤에 대기하고 있던 타자는 바로 나성범이었다.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파괴력을 가진 나성범이지만 부상 회복 후 부진을 겪고 있던 상황, 김도영이 까다로운 상대가 되면서 연출된 고의사구 장면이었다.

당시에는 나성범이 초구에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지만 9일 LG전 상황은 달랐다.

LG가 김도영 대신 선택한 타자는 최형우였다. 타점 1위 최형우는 시원하게 만루포를 장식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돌았다.

초반 부진을 털어낸 나성범과 소크라테스도 매서운 방망이를 선보이면서 KIA는 화력의 팀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뜨거운 화력, 무엇보다 타선의 망형과 막내가 타선을 이끌면서 1위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게 반갑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김도영은 선배들의 노하우를 보고 배우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허리 역할을 하는 박찬호도 계산이 서는 선수가 됐고, 최원준도 최근 좋은 페이스를 보이면서 고된 많은 KIA 타선의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20-20' KIA 김도영 '6월 MVP' 선정

3·4월 이어 시즌 두번째

'20-20'에 빛나는 김도영(사진)이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지난 3·4월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김도영은 팬투표 결과 50만7615표 중 24만 5598표를 받으면서 4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기자단 투표에서는 30표 중 6표(20.7%)를 받아 총점 34.54를 기록, 키움 김혜성(기자단 13표·팬 투표 4만7854표·총점 27.13점)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김도영은 지난 6월 23일 홈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시즌 20번째 홈런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번째이자 통산 57번째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다.

김도영은 이 홈런으로 전반기에 '20-20'을 완성한 4번째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반기 20-20을 이룬 선수는 박재홍(1996·2000년), 이병규(1999년), 테임즈(2015년)가 있다.

김도영은 6월 한 달 24경기에 나와 32개의 안타를 기록했다. 3경기에서 3안타를 만들었고, 10차례 멀티히트에도 성공했다. 또 8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월간 홈런 2위를 기록했다. 득점은 27개로 1위.

장타율 0.681(3위), 출루율 0.468(4위)을 기



록한 김도영은 1.149의 OPS로 이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6월 뜨거운 화력을 보여줬다.

김도영은 앞서 KBO리그 첫 '월간 10-10'을 이루면서 지난 3·4월에도 MVP에 등극했다. 같은 해 두 차례 월간 MVP에 오른 경우는 2022년 6월과 9월에 월간 MVP를 차지한 이정후 이후 2년 만이다.

6월 MVP 김도영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또 김도영의 모교인 광주 동성중에는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